【주제발표】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 범위

임기환 *

Ⅰ. 머리말
Ⅱ. 4세기 중엽 ~ 6세기 중엽 고구려의 대백제 관계와 영역 변화
Ⅲ. 5세기 중엽 ~ 6세기 중엽 고구려의 대신라 관계와 영역 변화
Ⅳ.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난 고구려의 영역 범위
Ⅴ. 맺음말

Ⅰ. 머리말

4세기 후반 백제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6세기 중반 한강 유역의 상실까지 이어지는 시기는 고구려가 한반도 내 삼국간의 역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영역의 확장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그러한 역사적 결과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한주(한산주) · 삭주(우수주) · 하서주(하슬라주)의 3주에 걸쳐 고구려 군현명을 남기게 되었고, 한강 하류 지역에 성곽 등 다수의 물질 자료를 남기고, 영주 등 경북 지역에도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흔적을 남겼다.[1]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kh303@snue.ac.kr)

1) 필자는 고구려의 한강유역 남하 과정과 영역 지배에 대해서 기왕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본고의 작성에는 아래 논문을 많이 참고 인용하였다.
임기환, 2002, 「고구려, 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임기환, 2005,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백제 관련 기사의 검토」, 『漢城百濟史料硏究』(기전문화연구원).
그리고 고구려의 영역의 남한선에 대해서는
정운용, 1989, 「5세기 고구려 세력권의 남한」, 『사총』 35
서영일, 1991, 「5~6세기의 고구려 동남경 고찰」, 『사학지』24 등을 참고하였다.

본 글에서는 4세기 중반부터 다시 전개되는 고구려의 남진 및 영역 확장 과정과 영역 지배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대략 1세기 반에 걸친 고구려의 영역 확장 혹은 축소 과정 자체가 시대 상황에 따라 차별적일 수밖에 없고, 또 상대국에 따라서 혹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영역 지배의 양상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본 글에서 검토하는 주된 자료는 『삼국사기』 본기 기사와 지리지 기사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헌 자료는 후대에 균질적이고 평면적으로 정리된 자료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각 사료가 보여주는 계통성을 밝히고 사료 성격에 따라 기사의 해석에도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Ⅱ. 4세기 중엽 ~ 6세기 중엽 고구려의 대백제 관계와 영역 변화

4세기 중반 이후 반도 내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의 주인공은 바로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였다. 4세기 중엽 이후 6세기 중엽까지 『삼국사기』 본기 기사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대외 관계 기사를 정리하고, 각 기사의 원전 계통을 분석, 정리하여 다음의 〈표 1〉을 만들었다.[2)]

〈표 1〉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표(4세기 중반 ~ 6세기 중반)

본기 출전 기사			접전지역	공격주체	내용	원전기사
서기	고구려	백제				
369	故國原王 39	近肖古王 24	雉壤水谷城	고구려兵2萬→백제		백제본기
371		근초고왕 26	浿河	고구려→백제		백제본기
	고국원왕 41	근초고왕 26	平壤城	백제兵3萬→고구려	평양성 함락	(백제본기)
373		근초고왕 28			靑木嶺축성	백제본기

2) 이하 1장 본문에서 『삼국사기』 본기의 기사는 별도로 전거를 제시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첨부자료 1」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375	小獸林王 5	근초고왕 30	水谷城	고구려→백제		백제본기
376	소수림왕 6	近仇首王 2	백제 北鄙	고구려→백제		(백제본기)
377	소수림왕 7	근구수왕 3	平壤城	백제兵3萬→고구려		(백제본기)
	소수림왕 7	근구수왕 3		고구려→백제		(백제본기)
386		辰斯王 2			백제靑木嶺--西海관방설치	백제본기
	故國壤王 3			고구려→백제		(백제본기)
389	고국양왕 6	진사왕 5	고구려 南鄙	백제→고구려		(백제본기)
390	고국양왕 7	진사왕 6	都坤城	백제→고구려		백제본기
392	廣開土王 1	진사왕 8	石峴城	고구려兵4萬→백제	석현성 등 10성 함락	백제본기
	광개토왕 1	진사왕 8	關彌城	고구려→백제	관미성 함락	(백제본기)
393	광개토왕 2	阿莘王 2	關彌城	백제1萬→고구려		백제본기
394	광개토왕 3	아신왕 3	水谷城	백제→고구려		백제본기
	광개토왕 3				고구려 築國南七城	고구려본기
395	광개토왕 4	아신왕 4	浿水	백제→고구려		백제본기
	아신왕 4			백제兵7千→고구려	靑木嶺 주둔,폭설로 회군	백제본기
398		아신왕 7		백제→고구려	漢山北柵진주, 정벌 중지	백제본기
399		아신왕 8			백제, 고구려 정벌계획	백제본기
469		개로왕 15	고구려 남변	백제→고구려		백제본기
					雙峴城 수리, 靑木嶺 大柵	백제본기
469	장수왕 57	개로왕 15	고구려 남변	백제→고구려		(백제본기)
475	장수왕 63	개로왕 21	백제 漢城	고구려兵3만→백제	한성 함락	3 본기
482		동성왕 4	백제 漢山城		말갈→백제	백제본기
494	문자왕 3	동성왕 16	薩水, 犬牙城	고구려→신라	백제병 3천 구원	신라본기
495	문자왕 4	동성왕 17	백제 雉壤城	고구려→백제	신라 구원	백제본기
501		무령왕 1	고구려 水谷城	백제兵5천→고구려		백제본기
502	문자왕 11	무령왕 2	고구려 변경	백제→고구려		
503	문자왕 12		고구려 水谷城	백제→고구려		(백제본기)
		무령왕 3	馬首柵, 高木城	말갈→백제		백제본기
506		무령왕 6	高木城	말갈→백제		백제본기
	문자왕 15			고구려→백제		고구려본기
507		무령왕 7			高木城목책, 長嶺城 축조	백제본기
	문자왕 16	무령왕 7	橫岳	고구려,말갈→백제		백제본기
512	문자왕 21	무령왕 12	加弗城,圓山城,菓川	고구려→백제		백제본기
523	안장왕 5	성왕 1	浿水	고구려→백제병1만		백제본기
	무령왕				漢城행차, 雙峴城축성	백제본기
529	안장왕 11	성왕 7	백제穴城, 五谷	고구려→백제	안장왕 친정, 백제병 3만	백제본기
540	안원왕 10	성왕 18	고구려 牛山城	백제→고구려		(백제본기)
548	양원왕 4	성왕 26	백제 漢北獨山城	고구려,穢人→백제	신라 구원	(백제본기)
550	양원왕 6	성왕 28	고구려 道薩城	백제→고구려 정월		(백제본기)
	양원왕 6	성왕 28	백제 金峴城	백제→고구려		(백제본기)
554	양원왕 10		백제 熊川城	고구려→백제	고구려본기	

* 출전 기사는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중 기사가 있는 왕대의 기년만 기재.
→는 공격주체를 표기하고, 원전기사는 기사의 원전 계통을 판단함. ( )는 불분명.

그런데 위 〈표 1〉을 보면 26건의 기사는 양 본기에 모두 나타나는 공유 기사이다. 이 공유 기사의 원전 계통을 판단한 결과 『삼국사기』 본기의 양국관계를 전해주는 26건의 공유 기사 대부분이 백제의 전승 자료에 의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3] 즉 『삼국사기』 본기 기사를 통해 양국의 관계를 추적할 경우, 상당 부분이 백제의 시각을 담고 있는 백제측 자료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위 〈표 1〉에 나오는 주된 접전 지명인 雉壤·水谷城·浿河·浿水·都坤城·石峴城·靑木嶺·關彌城 등의 지명은 백제계 지명임이 분명하며, 이들 전투 지점이 갖는 의미도 역시 백제의 입장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표 1〉에 의거하여 4세기 중반부터 전개되어 온 양국의 충돌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영역의 변천에 대해 먼저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다.[4] 고구려와 백제는 369년에 첫 전투를 벌인 이래 여러 차례 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어느 일방의 우세를 갖지 못한 채, 주로 황해도의 雉壤(황해도 白川)과 水谷城(황해도 新溪) 및 浿河(예성강) 일대, 즉 대략 지금의 예성강 지역을 경계로 서로 공방을 거듭하며 교착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황 속에서 당시 백제는 예성강 일대의 1차 방어망 남쪽으로, 373년에 靑木嶺(개성) 일대에 城을 쌓고, 386년에는 다시 靑木嶺에서 북으로는 八坤城(위치 미상), 서쪽으로는 서해에 이르는 關防을 축조하여 새로이 2차 방어망을 구축

3)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 보이는 동일한 내용의 기사의 경우 대체로 한 본기를 구성하는 자료를 원전으로 해서, 다른 본기에는 주어와 객어만 바꾸어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술하는 예가 일반적이다. 그 중 원전 자료는 기사 내용의 상세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구체적인 기사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계통의 원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사의 내용이 전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원전의 귀속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 공유 기사의 원전 계통을 따져본 결과를 위 〈표 1〉에 밝혔다.

4) 4세기 중반 ~5세기 초 광개토왕대까지 이루어진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 과정 및 고구려의 영역 확보에 대해서는 임기환, 앞의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백제 관련 기사의 검토」 참조.

하였다.

광개토왕이 즉위하면서 고구려의 적극적인 공세로 상황은 일변하였는데, 392년 7월에 백제를 공격하여 10城을 빼앗았고, 10월에 백제 서북의 요충지인 關彌城을 함락시키면서 주도권을 잡았다. 관미성의 위치를 알기는 어렵지만, 386년에 축조한 관방이 靑木嶺에서 서쪽으로는 서해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관미성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혹 이 관방의 서쪽단에 축조한 성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에 의한 관미성의 함락과 뒤이은 공방전은 고구려가 백제의 2차 방어망을 돌파하였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후의 戰況은 달라진다. 394년과 395년의 전황을 보면 비록 백제가 패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투가 벌어진 지점이 水谷城과 浿水라는 점이 유의된다. 즉 『삼국사기』 본기에 보이는 공방전은, 전황에서는 고구려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그렇게 일방적인 우세를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 금석문 자료인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96년(영락 6)에 백제는 58성을 잃고 치욕적인 항복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고구려와의 직접 충돌한 기사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즉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영락 6년의 전투를 통하여 고구려는 백제 58성을 획득하는 영역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며, 이 영역은 광개토왕대의 최종 훈적으로 기록되듯이 광개토왕대 내내 고구려의 장악 아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삼국사기』 본기에서 보여주는 역사상과 「광개토왕비」의 역사상은 전혀 다른 것인가?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양 기사에 공통된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 본기에는 광개토왕 즉위년(백제 진사왕 8년)에서 8년(백제 아신왕 8년)까지 양국의 충돌이 9회의 기년 기사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를 「광개토왕비」에는 396년(영락 6) 고구려의 군사행동에 일괄 기록하는 서술법을 취한 것

이다.[5]

그리고 「광개토왕비」에도 백제가 396년 이후에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400년(영락 10)에 왜군이 帶方界를 공격하는 기사이다.[6] 이 대방계 공격 기사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 본기 기사 중 394년과 395년에 水谷城과 浿水 등 예성강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기사를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96년(영락 6)의 58城 상실 및 400년(영락 10)의 대방계 전투라는 비문의 기사가 보여주는 역사상은, 『삼국사기』 본기에서는 392년의 關彌城과 한수 이북 영역 상실에서 이후 394년의 수곡성, 395년의 패수에서의 전투가 벌어지는 전황의 맥락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보인다.

어쨌든 『삼국사기』 본기 기사를 보면 광개토왕대 고구려가 남하하여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였다가 다시금 예성강 전선 일대로 후퇴한 뒤, 백제의 2차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398년 백제군이 漢山北柵에 이르렀다는 기사나, 469년(백제 개로왕 15년)에 雙峴城을 수리하고 靑木嶺에 大柵을 설치하여 北漢山城의 군사들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는 「백제본기」 기사에서 추정할 수 있다.

靑木嶺은 백제의 2차 방어선의 핵심적인 요충지이며, 雙峴城 역시 398년(아신왕 7년)에 새로 축조한 요충성이다. 雙峴城의 위치를 추정할 뚜렷한 단서는 없지만, 靑木嶺과 함께 기술할 만큼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는 성이었음은 분명하다. 청목령이 치양(배천)의 배후 2차 방어선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아마도 쌍현성은 수곡성(신계)의 배후 2차 방어선의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로상에서 추정해

---

5) 武田幸男, 1978, 「廣開土王碑文辛卯年條の再吟味」, 『古代史論叢』上, 50~84쪽.
이기동, 1987, 「광개토대왕비문에 보이는 백제관계기사의 검토」, 『백제연구』 1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6) 「광개토왕비」 "十四年甲辰而倭不軌侵入帶方界□□□□□石城□連船□□□王躬率□□從平穰□□□鋒相遇王幢要截盪寇潰敗斬煞無數".

보면 대략 지금의 철원 혹은 연천 일대가 아닌가 짐작된다. 이렇게 개로왕대 청목령과 쌍현성을 주된 방어선으로 하였다고 보면, 398년 무렵의 전선이 70여년 동안 거의 변동없이 469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백제계 자료인 「백제본기」에 나타나는 정황은 주로 예성강·임진강·한강 하류로 이어지는 지역의 사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적 범주 자체가 당시 백제가 중시했던 지리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기의 기사가 백제계 자료임을 반영하고 있다. 반대로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58성의 범위는 본기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역사상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396년에 고구려의 대 백제전을 통해 획득한 58성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물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 본기와 「광개토왕비」의 기사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고 일정한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일단 『삼국사기』 본기의 기사와 「광개토왕비」의 기사를 함께 고려하여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영역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락 6년조에서 고구려가 공파한 58성의 위치와 영역 범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지만, 이 58성의 위치를 예성강에서 임진강 사이와 경기만 일부, 그리고 남한강 상류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7]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당시 백제와 고구려는 단지 임진강이나 한수 이북 지역을 놓고 영역 쟁탈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요 교통로를 놓고 공방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교통로가 갖는 역사적 성격과 연관되어 당시의 군사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8]

---

7) 李道學, 1988, 「永樂 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 『손보기停年紀念論叢』, 92~97쪽.
8) 광개토왕대 고구려군이 남하한 교통로에 대해서는 임기환, 2005, 앞의 논문 참조.

그런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 본기 기록에 의하면 광개토왕의 초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압박하여 영역을 차지하는 형세였으나, 점차 백제도 반격을 시도하여 대체로 한강 하류 유역 및 개성에서 임진강을 잇는 2차 방어선은 충분히 확보한 듯한 정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강 중상류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고구려가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400년(영락 10)에 신라를 구원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고구려군 5만이 신라로 남하하는 경로의 최남단은 남한강 유역에서 죽령을 넘는 경로가 가장 유력한데, 구체적으로는 평양-수안-신계[수곡성]-화천-춘천[우두성]-원주-충주-단양-죽령으로 추정된다. 이 경로는 주로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 일대가 된다. 이 지역에 대한 확보는 앞서 영락 6년의 군사활동의 결과로 보이며, 400년에 한반도 남쪽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군사행동은 이 지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즉 광개토왕대 고구려와 백제의 영역은 예성강~임진강 일대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지속되었으나, 한강 중류 및 남한강 · 북한강 지역은 고구려가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짐작된다. 아마도 이러한 정세는 475년 장수왕의 한성 공격시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다.

395년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 기사는 거의 70여년 동안 보이지 않다가, 469년 백제에 의한 고구려 공격, 475년 고구려의 대규모 군사행동으로 한성 공격과 함락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성의 함락으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가 한강 하류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영역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관심을 끄는데, 뒤에서 살펴보듯이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군현 기사는 그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이러한 지리지 기사와는 다른 정황을 보여주는 기사가 적지 않다. 이제 한성 함락 이후의 고구려와 백

제의 충돌 과정을 앞의 〈표 1〉과 「백제본기」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시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는 거의 대부분 백제계 자료를 원전자료로 기술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4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와 백제 관계를 보여주는 『삼국사기』 본기 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9]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은 495년에 재개되는데, 의외로 충돌 지점은 雉壤城이었으며, 501년에도 백제가 고구려의 水谷城을 공격하였다. 즉 4세기 중반에 고구려와 백제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된 치양성과 수곡성이 다시 전투의 무대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백제본기」의 관련 기사의 사실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기사와 관련해서는 말갈의 백제 공격 기사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482년 · 503년 · 506년 · 507년에 말갈이 등장하여 漢山城 · 馬首柵 · 高木城 등지에서 백제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지명은 온조왕~다루왕대 및 초고왕~고이왕대의 말갈 관계 기사에 등장하는 지명과 동일하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동성왕 · 무령왕대에는 초기의 말갈 침입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동성왕 이후의 말갈 기사는 초고왕~고이왕대의 말갈 관계 기사와 연관하여 이해함이 합리적이다.[10]

6세기에 들어 나타나는 백제와 고구려의 충돌 지점도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다. 일단 「백제본기」에 의해 양국의 충돌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

9) 임기환, 2004, 앞의 논문, 130쪽.

10) 「백제본기」의 말갈에 대한 기사는 그 기사의 분포로 보아 대략 4시기로 나누어진다. 온조왕 2년(서기전 17)~다루왕 29년(56년)에 14건의 기사가 집중되어 있다. 이후 말갈 기사는 초고왕 45년(210)~고이왕 25년(258)에 6건의 기사가 연속되고, 진사왕대에 2건의 기사가 보이다가(387, 391), 다시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인 동성왕 4년(482)~무령왕 7년(507) 기간에 4건의 기사가 연속되고 있다. 크게 보면 4시기로 나뉘어 말갈 기사가 분포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4시기에 나뉘어져 있는 말갈 기사는 대체로 高木城, 馬首柵, 漢山城, 赤峴城, 沙道城, 述川, 牛谷 등의 지명을 공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5세기 동안에 걸쳐 백제의 대외관계나 세력의 소장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와 말갈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지역

과 같다. 507년에 고구려는 말갈과 더불어 漢城과 橫岳을 공격하였으며, 512년에는 加弗城과 圓山城을 공격하였다. 이 두 성의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앞 뒤의 정황으로 보아 한강 유역 일대의 성으로 짐작된다. 523년에는 浿水에서 접전을 벌이고, 529년에는 穴城과 五谷에서 전투가 이어졌다. 540년에는 백제가 고구려의 牛山城을 공격하였으며, 548년에는 고구려가 濊와 더불어 漢北의 獨山城을 공격하였다. 이처럼 554년에 고구려가 백제의 熊川城을 공격한 기사를 제외하고는, 고구려와 백제의 주된 전투 지역은 한강 일대 혹은 그 이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투 기사 이외에도 「백제본기」에는 웅진 천도 이후에도 백제가 한강 유역을 경영하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는 기사가 적지 않다.[11]

(476) 문주왕 2년 봄 2월에 大豆山城을 수리하고 漢北의 民戶들을 이주시켰다.

(483) 동성왕 5년 봄에 왕이 사냥을 나가 漢山城에 이르러 군사와 백성을 위문하고 10일만에 돌아왔다.

(486) 동성왕 8년 牛頭城을 쌓았다.

(490) 동성왕 12년 가을 7월에 北部 사람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沙峴城과 耳山城 두 성을 쌓았다.

(499) 동성왕 21년 漢山 사람으로 고구려로 도망해 들어간 자가 2천 명이었다.

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아하다. 아마도 「백제본기」의 말갈 기사는 일정 시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가 후대의 사서 편찬시에 어떤 이유로 분산 기술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백제와 말갈의 충돌은 초고왕~고이왕대인 3세기 초반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본다. 당시 백제의 대외적 발전 양상을 고려해도 그러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동성왕 이후에 보이는 백제와 말갈의 충돌 기사 역시 초고왕~고이왕대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임기환, 2006, 「고대의 강원도와 삼국의 역관계」『강원도와 고구려』(강원학학술총서 3: 강원발전연구원) 참조.

11) 아래에서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전거는 생략한다.

(523) 무령왕 23년 봄 2월에 왕이 漢城으로 행차하여 좌평 因友와 달솔 沙烏 등에게 명령을 내려 漢北 州郡의 백성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雙峴城을 쌓게 하였다. 3월에 漢城으로부터 돌아왔다.

즉 위 기사에 의하면 동성왕·무령왕대에도 漢城·漢山城에 순행을 하거나 백성을 동원하여 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앞 시기의 한강 유역 혹은 그 이북 지역에서 고구려와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정황과 맞물려 있다.

개로왕대 고구려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어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백제가 한성 지역을 재차 경영하고 있는 듯한 사정을 전해주는 일련의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이에 대해서는 지명 이동의 결과로 보기도 하고,[12] 신빙성이 없거나 과장된 조작으로 보기도 하는 등[13] 부정적인 입장이 그동안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이 기록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백제의 한강 유역 회복이나 북방 영역의 운영을 동성왕~무령왕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14]

그러나 위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백제인의 영역 인식을 담고 있는 기사라는 점에서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당시에 雉壤城·水谷城·浿水 등지에서의 고구려와 백제가 접전하였다는 기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기사는 4세기 중반의 기사가 어떤 연유로 6세기 초 기사로 삽입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 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漢城 관련 기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조 기사 및 『일본서기』 권19,

12) 이기백, 1982,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백제연구』(특집호).
13) 이도학, 1984,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의 검토」 『한국사연구』 45.
14) 양기석, 1980, 「웅진시대 백제 지배층연구」 『사학지』14.
박찬규, 1991, 「백제 웅진초기 북경문제」 『사학지』 24.
김병남, 2002,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백산학보』 64.

欽明紀 12년 · 13년조 기사에 보이듯이,[15] 551년에 백제가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한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16] 더욱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말갈과의 충돌 기사를 앞 시기의 기사가 후대에 잘못 삽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고구려 관련 기사나 漢城 관련의 기사의 경우에도 이전 시기의 기사가 웅진 천도 이후에 분산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 아니면 지명의 이동에 따른 백제인들의 영역 인식의 결과로 이해함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본기 자료를 근거로 5세기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 및 고구려의 남하 영역 범위를 살펴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백제 지역에서의 고구려의 남하 영역은 현재로서는 「지리지」 기사가 가장 신뢰성 높은 자료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살펴보겠다.

Ⅲ. 5세기 중엽 ~ 6세기 중엽 고구려의 대신라 관계와 영역 변화

『삼국사기』 본기에서 5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와 신라의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기사를 정리하고 그 원전 계통을 파악하여 〈표 2〉를 만들었다.[17] 이 〈표 2〉를 중심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충돌 과정을 살펴보고,

---

15) 『일본서기』 권19, 欽明紀 12년조. "백제 聖明王이 몸소 군사 및 두 나라 병사를 거느리고 (두 나라는 신라, 임나를 말한다) 고려를 정벌하여 漢城의 땅을 차지하였다. 또 진군하여 平壤을 토벌하였는데, 무릇 옛 땅 6郡을 회복하였다."
『일본서기』 권19, 欽明紀 13년조 "이 해에 백제는 漢城과 平壤을 포기하였다. 신라가 이로 인해 漢城에 居하였으니, 현재 신라의 牛頭方 · 尼彌方이다."

16) 『삼국사기』 권44, 열전4, 居柒夫傳에 의하면 진흥왕 12년에 신라는 竹嶺 이북에서 高峴(지금의 강원도 철령) 이남의 10郡의 땅을 차지하였다고 한다(王命居柒夫……居柒夫等乘取竹嶺以外 高峴以內十郡). 이는 『일본서기』 欽明紀 12년 · 13년조 기사가 보여주는 정황과 일치하고 있다.

17) 이하 2장 본문에서 『삼국사기』 본기의 기사는 별도로 전거를 제시하지 않고 아래 〈표 2〉와 「첨부자료 2」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양국의 접전 지역을 통하여 당시 고구려가 남하한 영역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18]

〈표 2〉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표(5세기 중반~6세기 중반)

본기 출전 기사				접전지역	공격주체	내용	원전기사
서기	고구려	신라	백제				
450	장수왕 38	눌지왕 34		悉直城	신라→고구려	7월 何瑟羅성주가 고구려변장 살해	신라본기
	장수왕 38	눌지왕 34		신라 서변	고구려→신라		신라본기
454	장수왕 42	눌지왕 38		신라 북변	고구려→신라		
455		눌지왕 39			고구려→백제	신라 구원	신라본기
468	장수왕 56	자비왕 11		悉直城 (悉直州城)	고구려,말갈1만 →신라		(고구려본기)
475	장수왕 63	*자비왕 17	개로왕 21	백제 漢城	고구려兵3만→백제	한성 함락	3 본기
480		소지왕 2		신라 북변	말갈→신라		신라본기
481		소지왕 3		狐鳴城 등 7성, 彌秩夫, 泥河	고구려,말갈→신라	백제, 가야의 구원	신라본기
484		소지왕 6		신라 母山城	고구려→신라	백제 신라 협동	신라본기
489	장수왕 77	소지왕 11		신라 戈峴, 狐山城	고구려→신라	狐山城 함락	신라본기
494	문자왕 3	소지왕 16	동성왕 16	薩水,犬牙城	고구려→신라	백제병 3천 구원	신라본기
495	문자왕 4	소지왕 17	동성왕 17	백제 雉壤城	고구려→백제	신라 구원	
496	문자왕 5	소지왕 18		신라 牛山城, 泥河	고구려→신라		신라본기
497	문자왕 6	소지왕 19		신라 牛山城	고구려→신라	牛山城 함락	(신라본기)
548	양원왕 4	진흥왕 9	성왕 26	백제 漢北獨山城	고구려,穢人→백제	신라 구원	(백제본기)
550	양원왕 6	진흥왕 11	성왕 28	고구려 道薩城	백제→고구려	정월	(백제본기)
	양원왕 6	진흥왕 11	성왕 28	백제 金峴城	백제→고구려	3월	(백제본기)
	양원왕 6	진흥왕 11		道薩城, 金峴城	신라→고구려, 신라→백제	신라가 2성 탈취	신라본기
551	양원왕 7	진흥왕 12		10군(10성)	신라→고구려		신라본기

* 출전 기사는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중 기사가 있는 왕대의 기년만 기재.
→는 공격주체를 표기하고, 원전기사는 기사의 원전 계통을 판단함. ( )는 불분명.

18) 신라의 영역과 관련된 기사로는 「신라본기」에 다음 기사들이 있으나, 일단 그 기년에 여러 의문이 있다. 예컨대 기림왕 3년(300)의 比列忽 순행 기사는 比列忽(比列城)을 안변으로 비정한

고구려와 신라의 군사적 충돌은 450년에 시작되었다. 450년에 고구려의 변장이 悉直(삼척)에서 사냥을 하다가 신라의 何瑟羅(강릉)의 성주 三直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고구려 장수왕이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신라 왕의 사과로 인해 더 이상의 충돌 없이 사건은 무마되었다. 이 사건은 고구려의 정치적 · 군사적 영향력 아래에 있던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자립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후 양국의 충돌이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고구려의 본격적인 공세는 468년 2월에 이루어졌다. 말갈 군사 1만 명을 동원하여 신라의 悉直州城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그리고 이해 9월에 신라는 何瑟羅의 주민을 동원하여 泥河에 성을 쌓아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여기서 悉直城 · 何瑟羅 · 泥河의 위치가 문제로 된다. 즉 悉直城은 지금의 삼척 지역에 비정되고, 何瑟羅는 그보다 북쪽에 위치한 강릉에 비정되는데, 이 두 지역의 위치로 보아 이 기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왕의 연구에서는 이 기사의 신빙성이나 당시 고구려의 공격로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19]

그런데 이 468년의 두 기사에 대해서는 그 원전 자료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의 悉直城을 빼앗은 기사는 「고

다면, 이 지역이 당시에 신라의 영역 내에 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그리고 기림왕 3년(300)의 牛頭州 태백산에서 望祭를 올린 기사 및 눌지왕 22년(438)의 牛頭郡 홍수 기사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즉 牛頭州(牛頭郡)는 춘천 지역으로 3세기 말에는 백제가 장악하고 있었고, 5세기 초에는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지역이었다. 아마도 후대의 기사가 착오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다만 눈길을 끄는 것은 기림왕 3년(300)의 기사로, 2월에 比列忽(안변)에 순행하고, 3월에 牛頭州(우두주)에 이르렀다는 내용은 일련의 순행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순행 경로가 가능한 시기는 진흥왕대에 한강 상류의 6군 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장악한 뒤이다. 따라서 위 기림왕 3년의 기사는 진흥왕대 혹은 그 이후의 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19) 실직을 강릉 북쪽의 양양으로 비정하거나, 하슬라를 삼척 이남의 울진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5세기 전반에 고구려가 남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단양-영월-정선을 거쳐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안의 삼척으로 진출하는 진격로를 상정하면, 당시 하슬라(강릉)가 신라의 영역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이강래, 1985, 「삼국사기에 보이는 말갈의 군사활동」『영토문제연구』1. 참조).

구려본기」와 「신라본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으로 보아 봄 2월이라는 시기와 말갈 1만명이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고구려본기」 기사가 원전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기사는 고구려측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다음 「신라본기」에서 이 기사에 이어 기록된 何瑟羅人을 동원하여 泥河에 축성한 기사는 「신라본기」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신라측 전승 자료에 의거한 기사이다.

따라서 이 두 기사는 비록 468년에 연속되어 있는 기사이지만, 그 원전 자료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살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서로 원전을 달리하는 이 기사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그리 염두에 둘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다만 이 시기에 고구려와 신라의 주된 충돌 지점이 동해안 일대에서는 悉直(삼척)과 何瑟羅(강릉) 지역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당시 신라가 축성한 泥河의 위치는 불분명한데,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삼척과 강릉 일대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泥河는 481년 · 496년에도 고구려와 신라의 접전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5세기 후반 동안 내내 이 일대가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이 교차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468년 실직성을 빼앗은 고구려는 480년에 당시 고구려에 부용되어 있던 말갈, 즉 濊族을 동원하여 신라의 北邊을 침입하였으며, 이듬해인 481년에는 다시 말갈병과 함께 신라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가하였다. 그 결과 狐鳴城 등 7성을 빼앗고 또 彌秩夫까지 진출하였으나,[20] 백제 · 가야의 지원을 얻은 신라의 반격으로 다시 泥河 선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그런데 「신라본기」에 의하면 481년 봄 2월에 신라 소지왕이 比列城

20) 狐鳴城의 위치는 '也尸忽', 즉 '여우-성'으로 불리운 영덕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손영종, 1985,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력사과학』 85~2. 34쪽). 彌秩夫의 위치는 경북 포항시 흥해지역으로 비정하기도 하는데(이병도, 1977, 『국역 삼국사기』, 47쪽),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彌秩夫에서 일어난 전선이 泥河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동해안 일대로 봄이 타당하다.

에 거둥하여 군사들을 위로하고 솜을 넣어 만든 군복을 내려주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比列城은 통상 함경남도 안변 일대로 비정된다. 「廣開土王碑」에 碑利城으로 나오는 이 지역은 아마도 고구려가 동예 세력을 통제하고 동해안 교통로를 따라 신라 지역으로 남하하는 배후 기지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삼척·강릉 일대에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왕이 比列城으로 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이 比列城 순행 기사는 후대 진흥왕 이후의 기사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어도 소지왕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는 438년 눌지마립간 때에 牛頭郡(춘천) 관련 기사를 들 수 있다. 이 당시에도 춘천 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기사 역시 후대 진흥왕 이후의 사실을 반영하는 기사일 것이다. 이와 같이 그 기년을 신뢰할 수 없는 이들 기사의 예로 보아, 「신라본기」의 대외관계 기사의 해석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소지왕대에는 신라의 대북방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21] 즉 483년에 소지왕은 一善 지역(경북 선산)에 순행을 하였고, 486년에는 장군 實竹을 보내어 일선군의 장정을 동원하여 삼년산성(충북 보은)과 굴산성을 개축하였다. 그리고 488년에 다시 일선군에 거둥하였다. 이러한 동향은 당시 신라가 일선 지역을 대고구려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진기지화하려는 노력으로 추정된다. 더욱 500년에 소지왕은 捺已郡(영주)에 거둥하여 재지 세력인 波路의 딸 碧花와 결혼하는데, 이는 영주 지역을 신라의 세력권내로 편입한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소지왕은 고구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취하면서 내륙 방면에서 신라의 북변을 북진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무렵 고구려와 신라의 동향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4년에 고구려가 신라를 침공하자 신라군은 백제와 연합하여 母山城에서

21) 이하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왕조에 의함 .

이를 격파하였으며, 485년에는 신라가 仇伐城을 쌓았고, 489년 9월에는 고구려가 신라 북변의 戈峴에 이르렀고, 겨울 10월에 신라의 狐山城을 함락하였다. 494년에는 신라 장군 實竹 등이 고구려와 薩水의 들판에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犬牙城을 지키면서 백제군의 구원으로 고구려군을 물리쳤다. 496년 7월에 고구려가 신라 牛山城을 공격해와 實竹이 泥河가에서 물리쳤으나, 497년 8월에 고구려가 다시 牛山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550년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충돌하는 틈을 이용하여 신라가 양국의 道薩城과 金峴城을 빼앗았다. 그리고 551년에 신라는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철령 이남의 땅 10군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와 신라군이 충돌한 母山城·戈峴·狐山城·薩水·犬牙城 등의 위치를 알기는 어렵지만,[2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一善 지역에 대한 신라의 통제력이나, 이 지역에서 활동한 實竹의 존재로 보아 이들 성의 위치도 대략 소백산맥 이남의 경북 지역, 즉 상주-문경-예천-영주 일대가 아닐까 짐작된다. 즉 내륙의 종단 교통로와 연관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牛山城의 공방전에서는 實竹이 등장하지만 이어지는 전선은 泥河 일대였다. 泥河는 앞서 동해안의 삼척 강릉 일대에 그 위치가 비정되었다. 따라서 496년 기사의 泥河는 동해안 일대의 니하와는 또다른 지명이거나, 아니면 일선 지역 일대에서 활약한 實竹이 동해안 일대로 옮겨 활동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당시의 전반적인 정황이 내륙 방면에서 접전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496년조의 牛山城과 泥河의 위치도 소백산맥 이남의 충북-경북 일대에서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540년에는 백제가 고구려의 牛山城을 공격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원전 계통이 달라 양자가 동일한 지역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삼국간의 요충지로서 牛山城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위치는 자연스럽게

22) 母山城은 진천 지역으로 비정되기도 하고(민덕식, 1980, 「진천 대모산성의 분석적 연구」『한국사연구』 29), 薩水는 충북 槐山郡 靑川面 일대로 비정되기도 한다.

충북-경북 일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480년 이후 고구려와 신라의 주된 충돌 지점은 그 이전의 동해안 일대가 아니라 중부 내륙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즉 동해안 지역에서는 505년에 신라가 悉直州(삼척)를 설치하여 군주를 파견하고, 512년에는 何瑟羅州(강릉)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동해안 경로 지역에서 신라의 북경이 상당히 안정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5세기 말부터 양국간에 새로운 전선이 구축되었던 까닭은, 동해안 일대에서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한 신라가 새로이 내륙 경로에 대한 고구려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면서 나아가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의 자세를 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에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공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신라는 고구려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신라가 북진을 꾀하게 되는 첫 걸음은 524년(법흥왕 11)에 沙伐州(상주)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23] 이후 죽령과 조령을 넘어 중원 지역을 차지하고,[24] 551년에는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략하여 竹嶺 이북 高峴 이남의 10군을 취하였다.[25] 고현은 오늘날의 강원도 회양군 鐵嶺 지역이니,[26] 이때 신라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이후 553년에 신라는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탈취한 한강 하류의 6군을 백제로부터 빼앗아, 이곳에 新州를 설치하였다.[27]

---

2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12년조. 사벌주(상주)는 조령을 넘어 청주와 통하고 화령을 넘어 보은 · 충주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24) 「적성비」에 의하면, 신라가 중원 지역을 차지한 시기는 진흥왕 6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邊太燮, 1978, 「丹陽眞興王拓境碑의 建立年代와 性格」『史學志』12, 32쪽.

25)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2년조 및 권44 居柒夫傳.

26) 池內宏, 1960, 「眞興王の戊子巡狩碑と新羅の東北方」『滿鮮史研究』 上世2, 吉川弘文館, 18쪽.

27) 신라가 이때 차지한 10군과 6군의 지역적 범위는 어디일까? 이와 관련하여『日本書紀』에는 "이 해에 백제는 漢城과 平壤을 포기하였다. 신라가 이로 인해 漢城에 거하였으니, 현재 신라의 牛頭方 · 尼彌方이다."라는 기록이 있다(『日本書紀』 권19, 欽明紀 13년조). 이 기록은 백제 측의 전승에 기초하였을 것인데, 여기서 牛頭方 · 尼彌方의 '方'이라는 명칭은 백제 사비시기 지방제도인 方-郡-城制의 '方'을 가르킬 것이다. 즉 10군과 6군을 차지한 신라의 점령지를

그러면 이 때 신라가 탈취한 10군에 해당하는 지역을 후일 牛首州(朔州) 소속의 군현에서 찾아보자. 대략 철령 이남 지역을 「지리지」에서 정리해 보면, 牛首州(춘천) · 平原郡(원주) · 奈吐郡(제천) · 斤平郡(가평) · 楊口郡(양구) · 狌川郡(화천) · 母城郡(김화) · 客連郡(회양) · 大楊管郡(회양) 지역 등을 후보로 볼 수 있다. 다음 한강 하류의 6郡의 범위를 찾아보자. 이 6군은 한산주의 영역 범위와 대략 일치되리라 짐작되는데, 당시 신라의 북진 경로를 고려하면 漢山郡과 北漢山郡을 비롯하여 栗木郡(과천) · 主夫土郡(부천) · 皆次山郡(죽산) · 述川郡(여주) 정도를 대응시킬 수 있겠으며, 買忽郡(수원)이나 唐城郡(화성)도 포함할 수 있겠다.

신라는 556년에는 比列忽州를 설치하고, 557년에는 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 이후 몇차례 州의 치폐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산 일대를 계속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28] 즉 6세기 중반에 신라가 서쪽으로는 한강 하류 지역, 동북쪽으로는 안변에서 북한강 지역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한 이후에는 이 일대가 고구려와 신라의 주된 영역 경계가 되었다.

Ⅳ.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난 고구려의 영역 범위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 지역 일대에 대한 영역의 범위 및 영역 지배

백제는 자신의 지방제도 방식으로 기술했던 것이다. 백제의 方은 신라의 州에 대응시킬 수 있으므로, 牛頭方과 尼彌方은 곧 신라식으로는 牛頭州와 尼彌州로 바꾸어 볼 수 있다. 그런데 牛頭州는 朔州의 옛 지명이므로, 이는 신라가 攻取한 10郡 지역을 가르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尼彌方의 위치는 한강 하류의 6郡과 관련시켜 그 지리적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지리지」나 「본기」 기사에서 尼彌方에 직접 대응되는 명칭은 없지만, 후일 신라의 南川州가 설치되었던 南買에 가장 가까이 대응시켜 볼 수 있겠다. 즉 尼彌方(州)이란 명칭은 南川州(南買)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임기환, 2002, 앞의 논문 참조.

28) 眞平王 25년(603년) 8월에 "고구려가 北漢山城을 침공하니, 왕이 친히 1만 병사를 이끌고 가서 막았다"(「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평왕조)는 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방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삼국사기』 권35, 지리2, 신라조의 漢州 · 朔州 · 溟州의 군현 기사이다. 그리고 『삼국사기』 권37, 지리4, 고구려조에도 같은 지역의 고구려 군현명을 전하고 있다. 위의 양 기사를 정리하여 다음 〈표 3〉을 만들었다. 「지리지」에 실려 있는 고구려 군 · 현에 관한 기록은 신라가 이 지역을 장악한 후 지방 지배체제를 갖출 때, 기존 고구려의 지방 지배의 영역과 범주를 어느 정도 계승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리지」의 기사는 비록 신라 때의 기록이지만, 고구려 지방통치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표 3〉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고구려 군현명

지리지2 신라조 고구려 지명			지리지4 고구려조 고구려 지명	경덕왕 개명	고려시대 명	현 지명
주명	군명	현명				
漢州	漢山郡		漢山州	漢州	廣州	광주
		南川縣	南川縣[南買]	黃武縣	利川縣	이천
		駒城縣	駒城[滅烏]	巨黍縣	龍駒縣	용인
	國原城		國原城	中原京	忠州	충주
	仍斤內郡		仍斤內郡	槐壤郡	槐州	괴산
	述川郡		述川郡[省知買]	(沂)川郡	川寧郡	여주
		骨乃斤縣	骨乃斤縣	黃驍縣	黃驪縣	여주
		楊根縣	楊根縣[去斯斬]	濱陽縣	楊根縣	양평
	今勿奴郡	今勿內郡[萬弩]		黑(黃)壤郡	鎭州	진천
		道西縣	道西縣[都蓋]	都西縣	道安縣	괴산
		仍忽縣	仍忽	陰城縣	道安縣	음성
	皆次山郡		皆次山郡	介山郡	竹州	안성 일죽
		奴音竹縣	奴音竹縣	陰竹縣	陰竹縣	음성 음죽
	奈兮忽		奈兮忽	白城郡	安城郡	안성
		沙伏忽	沙伏忽	赤城縣	陽城縣	안성 양성
		蛇山縣	蛇山縣	蛇山縣	稷山縣	천안 직산
	買忽郡		買忽[水城]	水城郡	水州	수원
	唐城郡		唐城郡	唐恩郡	唐城郡	화성 남양
		上忽縣[車]	上忽[車忽]	車城縣	龍城縣	화성 남쪽
		釜山縣	釜山縣[松村活達]	振威縣	振威縣	화성 진위
	栗木郡		栗木郡[冬斯肹]	栗津郡	菓州	시흥
		仍伐奴縣	仍伐奴縣	穀壤縣	黔州	서울 관악
		齊次巴衣縣	齊次巴衣縣	孔巖縣	孔巖縣	김포 양촌

	買召忽縣/弥鄒	買召忽縣[彌鄒忽]	邵城縣	仁州/慶原	인천	
	獐項口縣		獐項口縣[古斯也忽次]	獐口郡	安山縣	시흥
	主夫吐郡		主夫吐郡	長堤郡	樹州	부천
		首尒忽	首尒忽	戍城縣	守安縣	김포
		黔浦縣	黔浦縣	金浦縣	金浦縣	김포
		童子忽縣/幢山縣	童子忽縣[仇斯波衣]	童城縣	童城縣	김포 통진
		平唯押縣	平淮押縣[別史波衣淮(唯)]	分津縣	通津縣	김포 월곶
	北漢 山郡/平壤		北漢山郡[坪壤]	漢陽郡	楊州옛터	구리 아차산
		骨衣奴縣	骨衣內縣	荒壤縣	豊壤縣	양주 진접
		皆伯縣	王逢縣[皆伯/王迎]	遇王縣	幸州	고양 지도
	買省縣		買省郡[馬忽]	來蘇郡	見州	양주 주내
		七重縣	七重縣[難隱別]	重城縣	積城縣	파주 적성
		波害平史縣	波害平史縣[額]	波平縣	波平縣	파주 파평
	泉井口縣		泉井口縣[於乙買串]	交河郡	交河郡	파주 교하
		述尒忽縣	述尒忽縣[首泥忽]	峯城縣	峯城縣	파주 주내
		達乙省縣	達乙省縣[高烽]	高烽縣	高烽縣	고양 벽제
	馬忽郡		臂城郡[馬忽]	堅城郡	抱州	고양 벽제
		內乙買縣	內乙買[內尒米]	沙川縣	沙川縣	양주 북쪽
		梁骨縣	梁骨縣	洞陰縣	洞陰縣	포천 영중
	鐵圓郡		鐵圓郡[毛乙冬非]	鐵城郡	東州	철원
		僧梁縣	僧梁縣[非勿]	幢梁縣	僧嶺縣	연천
		功木達縣	功木達[熊閃山]	功成縣	獐州	연천
	夫如郡		夫如郡	*富平郡	金化縣	김화
		斧壤郡	於斯內縣*	廣平縣	平康縣	평강
	烏斯含達縣		烏斯含達縣	兎山郡	兎山郡	연백
		阿珍押縣	窮嶽	安峽縣	安峽縣	안협
		伊珍買縣	伊珍買縣	伊川縣	伊川縣	이천
	牛岑郡		牛岑郡[牛嶺/首知衣]	牛峯郡	牛峯郡	금천
		獐項縣	獐項縣[古斯也忽次]	臨江縣	臨江縣	장단
		長淺縣	長淺城縣[耶耶/夜牙]	長湍縣	長湍縣	장단
		麻田淺縣	麻田淺縣[泥沙波忽]	臨端縣	麻田縣	연천
	扶蘇岬		扶蘇岬	松岳郡	松岳郡	개성
		若豆恥縣	若只頭恥縣[朔頭/衣頭]	如禰縣	松林縣	장단
		屈押縣	屈於押[江西]	江陰縣	松林縣	금천
	穴口郡		穴口郡[甲比古次]	海口郡	江華縣	강화
		冬音奈縣	冬音奈縣[休陰]	江陰縣	河陰縣	강화
		高木根縣	高木根縣[達乙斬]	喬桐縣	喬桐縣	강화 교동
		首知縣	首知縣[新知]	守鎭縣	鎭江縣	강화
	大谷郡		大谷郡[多知忽]	永豊郡	平州	평산
		水谷城縣	水谷城縣[買旦忽]	檀溪縣	俠溪縣	신계
		十谷縣	十谷縣[德頓忽]	鎭湍縣	谷州	곡성
	冬彡(音)忽郡		冬音忽[豉鹽城]	海阜郡	鹽州	연백
		刀臘縣	刀臘縣[雉嶽城]	추澤縣	白州	연백

	內米忽郡		內米忽[池城/長池]	瀑池縣	海州	해주
	息城郡		漢城郡[漢忽/息城/乃忽]	重盤郡	安州	재령
	鵂嵒郡		鵂鶹城[租波衣/鵂巖郡]	捴嵒郡	鳳州	봉산
	五谷郡		五谷郡[于次呑忽]	五關郡	洞州	서흥
		(獐塞縣)	獐塞縣[古所於]	獐塞縣	遂安郡	수안
	冬忽		冬忽[于冬於忽]	取城郡	黃州	황주
		息達	今達[薪達/息達]	土山縣	黃州	중화
		加火押		唐嶽縣	中和縣	중화
		夫斯波衣縣		松峴縣	中和縣	중화
朔州			牛首(頭)州[首次若/烏根乃]	*朔州	春州	춘천
		伐力川縣	伐力川縣	*綠驍縣	洪川縣	홍천
		橫川縣	橫川縣[於斯買]	*潢川縣	橫川縣	횡성
		砥峴縣	砥峴縣	砥平縣	砥平縣	지평
	平原郡		平原郡[北原]	*北原京	原州	원주
	奈吐郡		奈吐郡[大堤]	奈隄郡	堤州	제천
		沙熱伊縣	沙熱伊縣	淸風縣	淸風縣	청풍
		赤山縣	赤山縣	赤山縣	丹山縣	단양
	奈已郡			奈靈郡	剛州	영주
		買谷縣	買谷縣	*善谷縣	(未詳)	예안
		古斯馬縣	古斯馬縣	*玉馬縣	奉化縣	봉화
	及伐山郡		及伐山郡	*及山郡	興州	순흥
		伊伐支縣	伊伐支縣[自伐支]	鄰豊縣	(未詳)	부석
	斤平郡		斤平郡[並平]	嘉平郡	嘉平郡	가평
		深川縣	深川縣[伏斯買]	*浚水縣	朝宗縣	가평 조종
	楊口郡		楊口郡[要隱忽次]	*楊麓郡	楊溝縣	양구
		猪足縣	猪足縣[烏斯廻]	*狶蹄縣	麟蹄縣	인제
		玉岐縣	玉岐縣[皆次丁]	*馳道縣	瑞禾縣	인제
		三峴縣	三峴縣[密波兮]	*三嶺縣	方山縣	양구 방산
	狌川縣		狌川郡[也尸買]	狼川郡	狼川郡	화천
	大楊菅郡		大楊菅郡[馬斤押]	*大楊郡	長楊郡	회양
		藪狌川縣	藪狌川縣[藪川]	*藪川縣和	川縣	회양 화천
		文峴縣	文峴縣[斤尸波兮]	文登縣	文登縣	회양 문등
	母城郡		母城郡[也次忽]	*益城郡	金城郡	김화 금성
	冬斯忽郡		冬斯忽	岐城郡	岐城郡	금성
	水入縣		水入縣[買伊縣]	通溝縣	通溝縣	금화
	各(客)連城郡		各(客)連郡[加兮牙]	連城郡	交州	회양
		赤木鎭	赤木鎭[沙非斤乙]	丹松顯	風谷縣	회양 풍곡
		管述縣	管述縣	軟雲縣	(未詳)	
		猪守峴縣	猪闌峴縣[烏生波衣/猪守]	狶嶺縣	(未詳)	
	比列忽郡		淺城郡[比烈忽]	朔庭郡	登州	안변
		경谷縣	경谷縣[首乙呑]	瑞谷縣	瑞谷縣	안변
		昔達縣	菁達縣[昔達]	蘭山縣	(未詳)	

		薩寒縣	薩寒縣	霜陰縣	(未詳)	안변
		加支達縣	加支達縣	*菁山縣	汶山縣	안변
		翼谷縣	於支呑[翼谷]	翊谿縣	翊谿縣	안변
	泉井郡		泉井郡[於乙買]	井泉郡	湧州	덕원
		買尸達縣	買尸達		(未詳)	
		夫斯達忽	夫斯達縣	松山縣	(未詳)	
		東墟縣	東墟縣[加支斤]	幽居縣	(未詳)	
溟州	河西良[何瑟羅]		何瑟羅州[河西良/河西]	溟州	溟州	강릉
		仍買縣	仍買縣	旌善縣	旌善縣	정선
		東吐縣	東吐縣	棟(棟)隄縣	(未詳)	
		支山縣	支山縣	*支山縣	連谷縣	명주 연곡
		穴山縣	穴山縣	洞山縣	洞山縣	
	屈火郡		屈火縣	曲城郡	臨河郡	안동 임하
		伊火兮縣	伊火兮縣	緣(掾)武縣	安德縣	청송
	也尸忽郡		也尸忽郡	野城郡	盈德郡	영덕
		助欖縣	助攬郡[才攬]	眞安縣	甫城府	청송
		靑已縣	靑已縣	積善縣	靑鳧縣	청송
	于尸郡		于尸郡	有鄰郡	禮州	영덕
		阿兮縣	阿兮縣	海阿縣	淸河縣	영일
	于珍也縣		于珍也郡	蔚珍郡	蔚珍郡	울진
		波且縣	波旦縣[波豊]	海谷縣	(未詳)	
	奈生郡		奈生郡(牛首州)	*奈城郡	寧越郡	영월
		乙阿旦縣	乙阿旦縣(牛首州)	子春縣	永春縣	영춘
		郁烏縣	于烏縣, 郁烏(牛首州)	白烏縣	平昌縣	평창
		酒淵縣	酒淵縣 (牛首州)	酒泉縣	酒泉縣	영월 주천
	(本悉直國)		悉直郡[史直]	三陟郡	三陟郡	삼척
		竹峴縣	竹峴縣[奈生於]	竹嶺縣	(未詳)	
		滿若縣	滿若縣滇兮	滿卿縣	(未詳)	
		羽谷縣	羽谷縣	羽谿縣	羽谿縣	
		波利縣	波利縣	海利縣	(未詳)	
	逆城郡		逆城郡[加阿忽]	*守城郡	杆城縣	간성
		僧山縣	僧山縣[所勿達]	*童山縣	列山縣	
		翼峴縣	翼峴縣[伊文縣]	翼嶺縣	翼嶺縣	
	達忽		達忽	高城郡	高城郡	고성
		猪逆穴縣	猪逆穴縣[烏斯押]	豢瑕縣	豢瑕縣	
		平珍峴縣	平珍峴縣[平珍波衣]	*偏嶮縣	雲巖縣	
	休壤郡		休壤郡[金惱]	金壤郡	金壤郡	
		習比谷縣	習比谷(呑)	*習谿縣	翕谷縣	
		吐上縣	吐上縣	隄上縣	碧山縣	
		道臨縣	道臨縣[助乙浦]	臨道縣	臨道縣	
		改淵縣	岐淵縣	派川縣	派川縣	
		鵠浦縣	鵠浦縣[古衣浦]	鶴浦縣	鶴浦縣	

「지리지」에는 2종의 고구려 군현 기사가 전한다. 즉 지리지2 신라조(이하 「신라지」)에서 고구려 군현명이 전하고, 또 지리지4 고구려조(이하 「고구려지」)에서도 고구려 지명이 전하고 있다. 양자의 기사는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만 일부 지명이나 읍격, 그리고 지명의 배열이나 영속 관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양 자료의 원전이 다른 데에 기인한 것이며,[29] 이 점에서 지리지의 자료 성격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양 자료의 원전이 성립한 시기에서나 고구려 당시의 지명을 전하는 내용의 양 등에서 「고구려지」의 기사 내용이 고구려 당시의 상황과 좀 더 가까우리라 생각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일단 위 〈표 3〉에 의하여 고구려 영역의 남방 계선을 찾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30] 한산주에서는 백제와 접촉하는 경계선이 될 터인데, 서해안으로부터는 唐城郡(남양)—釜山縣(진위)—蛇山縣(직산)—今勿內郡(진천)—仍斤內郡(괴산)으로 이어지는 계선이 될 것이다. 우수주에서는 奈吐郡(제천)—及伐山郡(순흥)—奈已郡(영주)로 이어지는 영역 계선이 확인되고, 하슬라주에서는 屈火郡(임하)—助攬郡(청송)—也尸忽郡(영덕)으로 이어지는 남방 계선이 나타난다.

신라가 설치한 3주 중에서 한산주의 한강 이남 지역은 551년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6군을 다시 신라가 탈취하여 설치한 지역으로, 신라인은 이를 고구려의 영역으로 인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31] 따라서 한산주 지역에서 고구려의 남방 계선으로 그어지는 영역 범위는 백제의 남천 이후 551년 무렵까지 고구려와 백제의 영역 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 우수주와 하슬라주에서 소백산맥 이남의

29) 「신라지」는 문성왕대 이후 신라 말기까지의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라면, 「고구려지」 원전의 성립시기는 그 상한은 경덕왕 7년으로, 하한을 흥덕왕대로 볼 수 있다는 연구 성과가 있다(김태식, 1997,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의 사료적 검토」 『역사학보』 154집 참조). 양 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위 김태식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30) 「지리지」 기사의 분석을 통해 고구려의 남방 계선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정운용, 1989, 「5세기 고구려 세력권의 남한」 『사총』 35가 참고된다.

고구려 영역과 남방 경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은데,[32]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리지」의 기록이 통일신라인의 영역 인식의 결과라는 점이다.

위 〈표 3〉에 의하면, 고구려는 새로 장악한 한반도 중부 지역 일대에 군현제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영역 지배를 실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지리지2의 漢州 · 朔州 · 溟州조에서 고구려 영역이었던 지역에서는 51개의 郡(州포함)과 95개의 縣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통일신라시대의 郡이 고구려 때에는 縣이었던 지역이 5곳이 있고, 또 지리지4의 고구려 군현명과도 일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고구려의 군현명 기록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통일신라의 군현 단위를 기준으로 삼았다.

물론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록된 고구려의 군현명과 그 편제를 그대로 고구려의 지방 지배 방식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후대 신라의 군현 조직이 어떤 형태로든지 소급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더욱 신라에 통합된 고구려의 영역 대부분은 이 시기에 새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진흥왕 이후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병합된 것으로, 이미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신라의 영토였다. 다시 말해서 9주 중 옛고구려 영토에 설치되었던 한주 · 삭주 · 하서주의 3주는 의도

31) 우수주의 奈已郡은 「신라지」에는 백제의 옛영역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구려지」에는 생략되었고 「백제지」의 말미로 옮겨 기술되고 있다. 奈已郡(영주)은 그 위치로 보아 도저히 백제의 영역이 될 수 없는 지역인데, 이러한 기록이 남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6세기 당시에는 백제와 신라의 군사동맹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인데, 혹 고구려와 신라가 충돌하던 최전선 지역이었던 영주 지역에 백제의 동맹군이 일시적으로 주둔하고 있던 사정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억측해 본다. 김현숙은 교통로상으로 볼 때 영주 지역은 고구려의 고지에 속하지 않았다고 본다(김현숙, 2002, 「4~6세기경 소백산맥 이동지역의 영역향방」 『한국고대사연구』26, 참고).

32) 이에 대한 학계의 논란에 대해서는 김현숙, 위의 논문, 77 · 78쪽 참고.

적으로 고구려 영토임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다분히 신라가 삼국의 통합을 달성하였음을 강조하려는 명분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지리지」에 기술된 고구려의 군현체계는 이러한 통일신라시대의 관념을 반영하려는 강한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 지배 당시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기 보다는 그 이후 신라의 북진 경략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라의 군현체제를 기준으로 고구려의 군현명을 재구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3주에 걸쳐 있는 고구려 故地에 대한 고구려의 장악과 지배 시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유의된다. 가장 이른 시기에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대략 예성강~임진강 유역과 이 지역에서 내륙 경로를 거쳐 남한강 상류(원주, 충주)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광개토왕 영락 6년(396)의 군사활동의 결과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신라가 죽령을 넘어 북진하기 시작한 540~550년까지 고구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아마도 삼척~강릉 일대까지가 5세기 중반 이전에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6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다. 대개 이 지역이 고구려의 영역으로 가장 장기간 유지된 곳이다. 그리고 한강 하류 지역에서 남양~괴산을 잇는 계선까지의 한산주 지역은 475년 한성 함락 때부터 551년 백제의 북진 때까지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제된 지역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소백산맥 남쪽의 고구려 영역에 대해서는 5세기 중반 이전에 차지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33] 이 지역 역시 광개토왕대 신라를 구원하는 군

33) 김정배, 1988,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문제」『한국사연구』 61 · 62합집.
정운용, 앞의 「5세기 고구려 세력권의 남한」.
서영일, 앞의 「5~6세기의 고구려 동남경 고찰」.
단, 노태돈은 5세기 중반 이후로 본다(노태돈, 1997,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고구려관계 기사 검토」『경주사학』16, 80쪽).

대를 파견하였던 400년 경에 신라가 구원군 파견의 댓가로 고구려에 넘겨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4] 이 지역이 언제 고구려의 영역 내지는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든지 간에 빠르면 5세기 중엽 이전에, 늦어도 5세기 말 이전에는 고구려의 세력이 축출되고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고구려의 세력권 내에 있었던 기간이 반세기를 전후한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지배의 양상과 내용은 다른 지역과 상당히 다를 가능성도 높다.[35] 동해안 지역에서는 삼척 이남의 울진-영덕-청송 지역은 481년의 고구려의 미질부(흥해) 공격을 전후한 시기에 일시 고구려에 편입된 지역이 아닌가 한다. 아마 가장 단기간 동안 고구려의 영향력이 미쳤던 지역일 것이다.

이처럼 한주(한산주) · 삭주(우수주) · 하서주(하슬라주)의 3주에 걸쳐 있는 고구려의 영역은 그 지배 시기나 지역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 방식도 차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지리지」의 기록은 매우 균질적이고 평면적이다. 그것은 아마도 신라에 의해 이 지역이 장악된 이후 신라의 지배체제를 기준으로 그 이전 고구려의 군현 등을 재구성한 결과로 짐작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리지」에 기술된 고구려의 군현명이나 영속 관계 등을 그대로 고구려 당시의 지배방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 지역 일대에 다수의 지배 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이루고 있었던 상황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다.

한편 한강 이남 지역의 고구려의 영역 지배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고고자료 등의 현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34) 김현숙, 앞의 「4~6세기경 소백산맥 이동지역의 영역향방」, 89쪽.

35) 영주와 순흥 일대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의 영향을 보이는 고고학적 자료들은 이 지역이 고구려와 신라의 접촉점 지역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고구려계 유적은 극히 제한적이다. 고구려의 생활 유적이나 고분 유적은 아직 찾아볼 수 없고, 한강 이남 지역에서 고구려 성으로 판단되는 유적도 의외로 희소하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한강 하류 이남에서부터 고구려 영역의 남한선에 이르는 지역에 고구려의 지방 지배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 증거로 성곽이나 고분 등은 매우 드물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구려의 산성이나 여러 보루 유적들은 한강 하류에서 임진강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 일대에도 「지리지」에 의하면 군현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들 소규모 군사 유적을 행정적인 군현의 치소 유적과 관련시키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지리지」에 기록된 고구려의 군·현이란 단위가 이러한 군사적 거점을 가르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고구려의 영역인 요동 및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 지역에는 대규모 산성이 축조되어 군사적인 방어는 물론 지방 지배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이남의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대형 산성은 커녕 소규모 군사 유적조차 드문 실정이다. 즉 한강 유역 전체 지역에서 城을 단위로 하는 본격적인 영역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까지의 고고자료로 본다면 郡縣制나 城을 단위로 한 본격적인 지방지배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러면 고구려는 어떠한 방식으로 한반도 중부 일대를 지배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남한강 상류의 國原城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국원성 지역에서는 중원고구려비가 발견되어 이 지역과 고구려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원고구려비에는 국원성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아직 판독되지 않는 글자가 많아 본래 국원성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문에 古牟婁城 守事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시점에서는 이 일대 경영에 있어서 고모루성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국원성의 위상이 강화된 시점은 중원 고구려비의 건립 이후로 추정된다. 「지리지」 고구려조 기사에 의하면 한산주와 국원성 그리고 駒城(용인)과 南川(이천)이 하나의 영속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즉 한강 하류의 北漢山郡과 남한강 상류의 國原城을 양대 중심 거점으로 삼고, 이 두 지역을 잇는 중간 거점으로 국원성의 영현인 駒城(용인)과 南川(이천)을 경영하면서, 이 네 지점을 연결하는 경로를 기간 교통로로 활용하면서 한강 유역 전체에 대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즉 교통로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 지배 형태라고 볼 수 있다.[36] 아마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현재 「지리지」의 군현 기사에서 군-현 등의 소지역으로 분할되어 영속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신라의 군현체제에 고구려의 군현명을 대응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리지」에 보이는 한반도 중부 지역 고구려 군현 관계 자료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지배한 형태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고구려의 지배는 몇몇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고 중요 교통로를 통해 한반도 중부 지역을 경영하는 군사적 거점 중심의 지배방식으로 추정된다. 551년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게 손쉽게 한강 유역을 내주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이 지역에 대한 지방 지배방식이 영역화를 추구해 갔다기 보다는 군사적인 거점 지배의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Ⅴ. 맺음말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본글에서는 4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와의 충돌 과정과 영

36) 임기환, 2002, 앞의 논문.

역 범위를 검토하였다. 먼저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 과정을 보면 『삼국사기』 본기 기사에 의하면 「광개토왕비문」과는 달리 광개토왕대 고구려가 남하하여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였다가, 다시금 예성강 전선 일대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백제계 자료인 「백제본기」에 나타난 정황은 주로 예성강-임진강-한강 하류로 이어지는 지역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광개토왕비」 영락 6년조 기사에 58성의 범위는 본기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역사상을 상정할 수 있다. 당시 백제와 고구려는 단지 임진강이나 한수 이북 지역을 놓고 영역 쟁탈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요 교통로를 놓고 공방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교통로가 갖는 역사적 성격과 연관되어 당시의 군사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당시 고구려는 한강 하류의 한강 이북 지역과 남한강 · 북한강의 중상류 지역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기 기사와 「광개토왕비」의 기사 사이에는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양자를 통합하여 이해하면, 광개토왕대에는 임진강~예성강 일대에서 양국의 공방전이 이루어졌고, 한강 중류와 북한강 · 남한강 일대는 고구려가 보다 안정적으로 영역을 확보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영역이 400년의 신라구원전 당시 고구려군이 활용한 내륙 종단 교통로였다.

고구려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한 시기는 475년 장수왕대 한성 공략 때였으며, 이후 고구려가 상당 기간 이 지역을 지배하였음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고구려군현 기사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백제본기」에는 이와는 다른 사정을 전해준다.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 기사를 전하는 본기의 원전 자료는 대부분 「백제본기」의 기사인데,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주된 충돌 지점으로 雉壤城 · 水谷城은 물론 漢城 등을 기술하고 있는 등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백제가 한성 지역을

재차 경영하고 있는 듯한 사정을 전해주는 일련의 기사가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이들 기사는 4세기 중반~5세기 중반의 기사가 웅진 천도 이후에 분산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

한편 5세기 중반 동해안 경로에서 삼척~강릉 일대에서 공방전을 계속하던 고구려와 신라의 충돌은 5세기 후반부터는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어 중부 내륙 지역에서 충돌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동해안 일대에서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한 신라가 새로이 내륙 경로에 대한 고구려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의 자세를 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소지왕대에는 소백산맥 이남의 고구려 영역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짐작되며, 6세기 중반에는 죽령을 넘어서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리지」에 기술된 고구려 군현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한주(한산주) · 삭주(우수주) · 하서주(하슬라주)의 3주에 걸쳐 있는 고구려의 영역은 그 지배 시기나 지역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방식도 차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지리지」의 기록은 매우 균질적이고 평면적이다. 그것은 신라에 의해 이 지역이 장악된 이후 신라의 지배체제를 기준으로 그 이전 고구려의 군현 등을 재구성한 결과로 짐작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고자료 등의 현황을 고려하면 「지리지」에 기록된 군 · 현 단위의 지방 지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한강 하류의 北漢山郡과 남한강 상류의 國原城, 그리고 이 두 지역을 잇는 중간 거점으로 駒城(용인)과 南川(이천)을 경영하는 방식의 예에서 보듯이, 고구려의 지배는 몇몇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고 중요 교통로를 통해 한반도 중부 지역을 경영하는 군사적 거점 중심의 지배방식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군사적 거점 지배방식이 갖는 불안전성이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상실하는 요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첨부자료 1」 4세기 중엽 ~ 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대외 관계 기사

(369) (백) 근초고왕 24년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斯由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雉壤에 와서 진을 치고는 군사를 나누어 민가를 약탈하였다. 왕이 태자를 보내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를 급히 쳐서 깨뜨리고 5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는데, 그 사로잡은 적들은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백) (근구수왕 즉위년) 고구려의 國岡王 斯由가 친히 쳐들어오자 근초고왕이 태자를 보내 이를 막게 하였다. 半乞壤에 이르러 장차 싸우려 하였다. (중략) 태자가 그 말을 좇아 나아가 쳐서 크게 이기고는 도망쳐 달아나는 자들을 추격하여 水谷城의 서북에 이르렀다.

(고) 고국원왕 39년(369) 가을 9월에 왕은 군사 2만 명으로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여 雉壤에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371) (백) 근초고왕 26년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왔다. 왕이 이를 듣고 浿河 가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이르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서 平壤城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斯由가 힘을 다해 싸워 막았으나 流矢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고) 고국원왕 41년 ㉡겨울 10월에 백제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은 군대를 내어 막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죽었다.

(373) (백) 근초고왕 28년 가을 7월에 靑木嶺에 성을 쌓았다.

(375) (백) 근초고왕 30년 가을 7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의 水谷城을

공격해 와서 함락시켰다. 왕이 장수를 보내 막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왕이 다시 군사를 크게 일으켜 보복하려 하였으나 흉년이 들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고) 소수림왕 5년 가을 7월에 백제 水谷城을 공격하였다.

(376) (백) 근구수왕 2년 겨울 11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에 쳐들어 왔다.

(고) 소수림왕 6년 겨울 11월에 백제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다.

(377) (백) 근구수왕 3년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平壤城을 쳤다. 11월에 고구려가 쳐들어 왔다.

(고) 소수림왕 7년 백제가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침공해 왔다.

11월에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였다.

(386) (백) 진사왕 2년 ㉠봄에 나라 안 사람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關防을 설치하였는데 靑木嶺에서부터 북쪽으로는 八坤城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

㉡ 8월에 고구려가 쳐들어 왔다.

(고) 고국양왕 3년 ㉡가을 8월에 왕은 군대를 내어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였다.

(389) (백) 진사왕 5년 가을 9월에 왕이 군사를 보내 고구려의 남변을 침략하였다.

(고) 고국양왕 6년 가을 9월에 백제가 침입해 와서 남변 부락을 약탈하고 돌아갔다.

(390) (백) 진사왕 6년 9월에 왕이 達率 眞嘉謨에게 명령하여 고구려를 쳐서 都坤城을 함락시키고 200명을 사로잡았다.

(고) 고국양왕 7년 가을 9월에 백제가 達率 眞嘉謨를 보내 都押城을 쳐부수고 200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392) (백) 진사왕 8년 ㉠가을 7월에 고구려 왕 談德이 군사 4만 명을

거느리고 북쪽 변경을 침공해 와서 石峴城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담덕이 군사를 부리는 데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지 못하니 漢水 북쪽의 여러 부락들이 다수 함락되었다.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關彌城을 쳐서 함락시켰다.

(고) 광개토왕 1년 ㉠가을 7월에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여 10성을 함락시켰다.

㉡겨울 10월에 백제 關彌城을 쳐서 함락시켰다. 그 성은 사면이 깎은 듯 가파르고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왕은 군사를 일곱 방향으로 나누어 공격한지 20일만에야 함락시켰다.

(393) (백) 아신왕 2년 가을 8월에 왕이 武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關彌城은 우리 북쪽 변경의 要害地이다. 지금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寡人이 분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바이다. 경은 마땅히 마음을 써서 설욕하라." 드디어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칠 것을 도모하였다. 무가 몸소 사졸보다 앞장서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면서 石峴城 등 다섯 성을 회복하려고 먼저 관미성을 포위하였으나, 고구려 사람들은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무는 군량 수송이 이어지지 못하므로 이끌고 돌아왔다.

(고) 광개토왕 2년 가을 8월에 백제가 남쪽 변경을 침략해 왔으므로, 장수에게 명하여 막게 하였다.

(394) (백) 아신왕 3년 ㉠가을 7월에 고구려와 水谷城 밑에서 싸워 패배하였다.

(고) 광개토왕 3년 ㉠가을 7월에 백제가 침략해 왔는데, 왕은 정예기병 5천 명을 거느리고 맞아 쳐서 이겼다. 나머지 적들이 밤에 도주하였다.

㉡8월에 나라 남쪽에 일곱 성을 쌓아 백제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395) (백) 아신왕 4년 ㉠가을 8월에 왕이 좌장 眞武 등에게 명령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고구려 왕 談德이 친히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浿水가에 진을 치고 막아 싸우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8천 명이었다.

㉡겨울 11월에 왕은 패수의 싸움을 보복하려고 친히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 靑木嶺 밑에서 머물렀다. 큰 눈을 만나 병사들이 많이 얼어 죽자 군대를 돌려 漢山城에 이르러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고) 광개토왕 4년 ㉠가을 8월에 왕은 浿水 가에서 백제와 싸워 크게 이기고 8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398) (백) 아신왕 7년 3월에 雙峴城을 쌓았다. 가을 8월에 왕이 장차 고구려를 치려고 군사를 내서 漢山北柵에 이르렀다. 그 날 밤에 큰 별이 병영 안에 떨어져 소리가 났다. 왕이 이를 심히 꺼리어 곧 중지하였다.

(399) (백) 아신왕 8년 가을 8월에 왕이 고구려를 치고자 하여 군사와 말들을 크게 징발하였다.

(469) (고) 장수왕 57년 가을 8월에 백제군이 남쪽 변경으로 쳐들어 왔다.

(백) 개로왕 15년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쳤다. 겨울 10월에 雙峴城을 수리하였고, 靑木嶺에 큰 大柵을 설치하여 北漢山城의 군사들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475) (백) 개로왕 21년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巨璉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王都 漢城을 포위하였다. 왕은 성문을 닫고 능히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고구려인이 군사를 四道로 나누어 양쪽에서 공격하였고, 또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인심이 대단히 불안해져서 혹 나가서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왕은 곤궁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기병 수십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다. 고구려인이 쫓아가 살해하였다.

(고) 장수왕 63년 9월에 왕은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왕이 도읍한 漢城을 함락시키고, 그 왕 扶餘慶을 죽이고 남녀 8천 명을 사로잡아서 돌아왔다.

(482) (백) 동성왕 4년 가을 9월에 靺鞨이 漢山城을 습격하여 깨뜨리고 300여 집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495) (백) 동성왕 17년 가을 8월에 고구려가 雉壤城을 포위해 오자 왕은 사신을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 왕이 장군 德智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니 고구려 군사가 물러나 돌아갔다.

(고) 문자왕 4년 가을 7월에 남쪽으로 순수하여 바다에 제사지내고 돌아왔다. 8월에 군사를 보내 백제 雉壤城을 포위하였다. 백제가 신라에 구원을 청하니, 신라 왕이 장군 德智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였으므로, 우리 군사가 물러나 돌아왔다.

(신) 소지마립간 17년 가을 8월에 고구려가 백제 雉壤城을 에워쌌으므로 백제 왕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장군 德智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게 하자, 고구려 무리들이 도망하였다. 백제 왕이 사신을 보내와 고마움을 표하였다.

(499) (백) 동성왕 21년 漢山 사람으로 고구려로 도망해 들어간 자가 2천 명이었다.

(고) 문자왕 8년에 백제 백성들이 굶주려 2천 명이 투항해 왔다.

(501) (백) 무령왕 1년 겨울 11월에 達率 優永을 보내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水谷城을 습격하였다.

(고) 문자왕 12년(503) 겨울 11월에 백제가 達率 優永을 보내,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水谷城으로 쳐들어 왔다.

(502) (백) 무령왕 2년 겨울 11월에 군사를 보내 고구려의 변경을 쳤다.

(고) 문자왕 11년 겨울 11월에 백제가 국경을 침범하였다.

(503) (백) 무령왕 3년 가을 9월에 靺鞨이 馬首柵을 불태우고 高木城으로 나아가 공격하였다. 왕은 군사 5천 명을 보내 이를 쳐서 물리쳤다.

(506) (백) 무령왕 6년 가을 7월에 말갈이 쳐들어 와서 高木城을 깨뜨리고 6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고) 문자왕 15년 겨울 11월에 장수를 보내 백제를 쳤으나 큰 눈이 내려 사졸들이 동상을 입고 돌아왔다.

(507) (백) 무령왕 7년 여름 5월에 高木城의 남쪽에 두 개의 목책을 세웠고, 또 長嶺城을 축조하여 말갈에 대비하였다. 겨울 10월에 고구려 장수高老가 말갈과 더불어 漢城을 공격하고자 꾀하여 橫岳 아래에 진군하여 주둔하였다. 왕은 군사를 보내 싸워 이를 물리쳤다.

(고) 문자왕 16년 왕은 장수 高老를 보내, 말갈과 함께 백제의 漢城을 칠 것을 꾀하여, 橫岳 밑으로 나아가 주둔하였는데, 백제가 군사를 내어 맞아 싸우므로 물러났다.

(512) (백) 무령왕 12년 가을 9월에 고구려가 加弗城을 습격하여 빼앗고, 군사를 옮겨 圓山城을 깨뜨렸는데 죽이거나 약탈한 것이 매우 많았다. 왕이 용맹스러운 기병 3천 명을 거느리고 葦川의 북쪽에서 싸웠다. 고구려 사람들은 왕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만만히 여겨 陣을 치지 않았다. 왕은 기묘한 계책을 내어 급히 쳐서 이를 크게 격파하였다.

(고) 문자왕 21년 가을 9월에 백제를 침략하여 加弗·圓山 두 성을 함락시키고, 남녀 1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523) (백) 성왕 1년 가을 8월에 고구려 군사가 浿水에 이르렀다. 왕은 左將 志忠에게 명령하여 步騎 1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싸우게 하여 이를 물리쳤다.

(고) 안장왕 5년 가을 8월에 군사를 보내 백제를 침략하였다.

(529) (백) 성왕 7년 겨울 10월에 고구려 왕 興安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 와서 북쪽 변경의 穴城을 함락하였다. 좌평 燕謨에게 명령하여 步騎 3만 명을 거느리고 五谷의 벌판에서 막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는데,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

(고) 안장왕 11년 겨울 10월에 왕은 五谷에서 백제와 싸워서 이기고 2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540) (백) 성왕 18년 가을 9월에 왕은 장군 燕會에게 명령하여 고구려의 牛山城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고) 안원왕 10년 가을 9월에 백제가 우산성을 포위하니, 왕은 날랜 기병 5천 명을 보내 쳐서 쫓아보냈다.

(548) (백) 성왕 26년 봄 정월에 고구려 왕 平成이 濊와 모의하여 漢北의 獨山城을 공격하였다. 왕은 사신을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 왕은 장군 朱珍에게 명령하여 갑옷 입은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였다. 주진이 밤낮으로 길을 가서 독산성 아래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와 한 번 싸워 크게 격파하였다.

(고) 양원왕 4년 봄 정월에 濊의 군사 6천 명으로 백제의 獨山城을 공격하였으나, 신라 장군 朱珍이 와서 구원하였으므로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신) 진흥왕 9년 봄 2월에 고구려가 穢人과 함께 백제 獨山城을 공격하였으므로 백제에서 구원을 청하였다. 왕은 장군 朱玲을 보내 굳센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치게 하였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550) (백) 성왕 8년 봄 정월에 왕은 장군 達己를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道薩城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3월에 고구려 군사가 金峴城을 포위하였다.

(고) 양원왕 6년 봄 정월에 백제가 침범해 와서 道薩城을 함락시켰다. 3월에 백제 金峴城을 공격하였는데, 신라 사람들이 틈을 타서 두 성을 빼앗아 갔다.

(554) (고) 양원왕 10년 겨울에 백제 熊川城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

「첨부자료 2」 5세기 중엽 ~ 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대외관계 기사

(424) (신) 눌지마립간 8년 봄 2월에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450) (신) 눌지마립간 34년 가을 7월에 고구려의 변방 장수가 悉直의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何瑟羅城 성주 三直이 군사를 내어 불의에 공격하여 그를 죽였다. 고구려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내가 대왕과 우호를 닦은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군사를 내어 우리의 변방 장수를 죽이니 이는 어찌 의리있는 일이겠는가?" 이에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서쪽 변경을 침입하였다. 왕이 겸허한 말로 사과하자 물러갔다.

(고) 장수왕 38년에 신라사람들이 변경의 장수를 습격해서 죽였다. 왕은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려고 하였으나, 신라 왕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였으므로 그만두었다.

(454) (신) 눌지마립간 38년 8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고) 장수왕 42년 가을 7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다.

(455) (신) 눌지마립간 39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입하였으므로 왕이 군사를 보내 구원하였다.

(468) (신) 자비마립간 11년 봄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 悉直城을 습격하였다. 가을 9월에 何瑟羅 사람으로서 15세 이상인 자를 징발하여 泥河에 성을 쌓았다(이하 泥河를 이천 泥川이라고도 하였다).

(고) 장수왕 56년 봄 2월에 왕은 靺鞨 군사 1만 명으로 신라의 悉直州城을 쳐서 빼앗았다.

(478) (고) 장수왕 66년 백제의 燕信이 항복해 왔다.

(480) (신) 소지마립간 2년 11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입하였다.

(481) (신) 소지마립간 3년 봄 2월에 比列城에 거둥하여 군사들을 위로하고 솜을 넣어 만든 군복을 내려주었다. 3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 狐鳴城 등 일곱 성을 빼앗고 또 彌秩夫에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가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여러 길로 나누어서 그들을 막았다. 적이 패하여 물러가므로 뒤쫓아가 尼河의 서쪽에서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천여 명을 목베었다.

(484) (신) 소지마립간 6년 가을 7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에 침입하였으므로 우리 군사가 백제와 함께 母山城 아래에서 공격하여 크게 깨뜨렸다.

(485) (신) 소지마립간 7년 5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와 예방하였다.

(489) (신) 소지마립간 11년 가을 9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갑자기 쳐들어와 戈峴에 이르렀고, 겨울 10월에 狐山城을 함락하였다.

(고) 장수왕 77년 가을 9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고 狐山城을 함락시켰다.

(494) (신) 소지마립간 16년 가을 7월에 장군 실죽 등이 고구려와 薩水의 들판에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犬牙城을 지키

고 있었는데, 고구려 군사가 그곳을 에워쌌다. 백제 왕 牟大가 군사 3천 명을 보내 구원하니 포위를 풀었다.

(고) 문자왕 3년 가을 7월에 우리 군사는 신라 사람들과 薩水 들판에서 싸웠다. 신라 사람들이 패하고 犬牙城을 지키자 우리 군사가 이를 포위하였으나, 백제가 군사 3천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했으므로 우리 군사가 후퇴하였다.

(백) 동성왕 16년 가을 7월에 고구려와 신라가 薩水 벌판에서 싸웠다. 신라가 이기지 못하여 물러나 犬牙城을 지키자 고구려가 이를 포위하였다. 왕은 군사 3천 명을 보내 구원하여 포위를 풀어 주었다.

(496) (신) 소지마립간 18년 가을 7월에 고구려가 牛山城을 공격해 왔다. 장군 實竹이 나아가 泥河 가에서 공격하여 깨뜨렸다.

(고) 문자왕 5년 가을 7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 牛山城을 공격하였다. 신라군이 泥河 가에 나와 반격하자 우리 군사가 패배하였다.

(497) (신) 소지마립간 19년 8월에 고구려가 牛山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고) 문자왕 6년 가을 8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 牛山城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550) (신) 진흥왕 11년 봄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 道薩城을 빼앗았다. 3월에 고구려가 백제의 金峴城을 함락시켰다. 왕은 두 나라의 군사가 피로한 틈을 타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이를 쳐 두 성을 빼앗아 증축하고 군사 1천 명을 머물러 두어 지키게 하였다.

(고) 양원왕 6년 봄 정월에 백제가 침범해 와서 道薩城을 함락시켰다. 3월에 백제 金峴城을 공격하였는데, 신라 사람들이 틈을 타서 두 성을 빼앗아 갔다.

(백) 성왕 8년 봄 정월에 왕은 장군 達己를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道薩城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3월에 고구려 군사가 金峴城을 포위하였다.

(551) (신) 진흥왕 12년 왕이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에 침입케 하였는데, 이긴 기세를 타고 10개 군을 빼앗았다.

(고) 양원왕 7년 신라가 공격해 와서 10성을 빼앗아 갔다.

(555) 진흥왕 16년 겨울 10월에 왕이 북한산에 순행하여 강역을 넓혀 정하였다. 11월에 왕이 북한산에서 돌아왔다.

(556) 진흥왕 17년 가을 7월에 比列忽州를 설치하고 사찬 成宗을 군주로 삼았다.

(557) 진흥왕 18년 國原을 小京으로 삼았다. … 新州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Goguryeo's Territory resulted from Southward Advance in 5~6th Century

Lim Ki Hwan *

This paper observed the process of collision of Goguryeo with Baekje and with Silla, and studied the scope of the territory where Goguryeo had expanded at this time.

During reign of King Gwanggaeto(廣開土王), collision between Goguryeo and Baekje were occured, and seems Goguryeo secured it's territory including midstream of Hangang River area.

It was the year of 475, when King Jangsu(長壽王) subsided Hansung(漢城) - the capital of Baekje -, Goguryeo holded area of downstream of Hangang River.

This is visible in the articles about Goguryeo counties and prefecture(郡縣) in Samguksagi(『三國史記』) geographical Gi(「志」) that Goguryeo had governed this region for a long time.

*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oguryeo and Baekje continued battles at a region of Samchuk and Gangneung in the middle of 5th century, then in the end of 5th century, the collision occured more often at the central part of inland area.

The result of this collision, Baekje took the south of Sobaek mountain range area from Goguryeo's territory, so in the middle of 6th century, Baekje debouched into the Hangang River.

Lastly, this paper studied character of Goguryeo counties and prefecture(郡縣) described in Samguksagi(『三國史記』) geographical Gi(「志」).

Because of the differences of governing time and regional character, governing method was discriminated in the Goguryeo's territory which was extended Han county(漢州), Sak county(朔州), Haseu county(河西州). Goguryeo's governing method to these region is presumed to secure the important route of transportation considering the strategic position.

key words: Goguryeo's territory, southward advance, Samguksagi(『三國史記』) geographical Gi(「志」), Goguryeo counties and prefecture(郡縣)